

독자 투고 / 시

## 고독

이 해 숙

〈부산시 진구 부전 1동〉

까만밤  
조용히 밀려오는 밀어들  
그언젠가 잊었던 날들이  
머리속에 되살아나면  
나의 그리움과 외로움이

긴긴 불면의 불꽃으로 자라오른다.  
그러나 너의 눈빛은  
사뿐히 소용돌이쳐  
먼 바다를 향하여 흔들리는  
속깊은 사모의 손길로

이렇게 이렇게  
가까이 다가와서  
내달려진 가슴을  
열어 사로 잡는다.